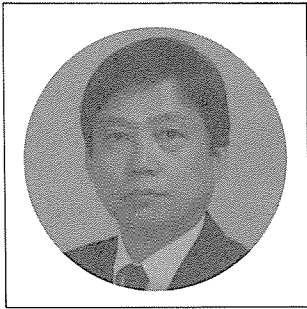


19·20세기 초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진화론 수용



李成奎

인하대강사·과학사

과학이 그것을 낳은 시대와 사회의 전반적인 사상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과학사연구의 성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학이론이 어떠한 사상적 토양에서 발생 전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本稿는 韓·日 두나라가 진화론의 수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 및 실태를 규명함으로써 먼저 두나라에 있어서 진화론이 제시하는 의미가 서양과는 크게 다를 것을 지적하겠다. 다음에 이는 두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자연관이 서양의 그것과는 다르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논리로 연결시킴으로써 그로부터 진화론은 극히 서양적인 자연관의 산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원래 Darwin은 생물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제창하였다. 이로부터 인간 사회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서 自然選擇理論이 사회이론에 적용하게 되는 것인바 바로 社會進化論의 탄생으로서, 한국과 일본에 주로 도입되고 논의된

것은 사회진화론이었다. Darwin이론은 서양에서는 격렬한 논의와 비판을 거쳐서 서서히 수용되는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확립된 진리로 여겨졌으며, 오직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자연선택)이라는 단순화된 공식으로 되어 그것이야말로 사회진보의 유일한 길인양 강조되면서 다양한 이념 및 주의의 위한 이론적 뒷받침으로 쓰였다. 일본의 진화론 수용 실태에 대해서는 渡邊교수에 의해서 자세히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에 의존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959년 Darwin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진 생물학상의 신이론인 진화론이 일본에 최초로 또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은 1877년으로, 이때 미국의 동물학자 E.S.Morse(1938~1925)가 진화론을 주제로 한 연속 3회에 걸친 강연을 동경 대학에서 행했던 것을 그 시작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고 Morse가 회상하고 있는데 이는 Darwin의 진화론이 일본에서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전조였던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진화론에 관한 저서들

이 연속해서 출판되게 된다. 그러나 진화론이 일본에서 큰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진화론이 생물학상의 이론으로 일본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인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논했던 것은 사회사상으로서의 진화론이었다. 진화론이 이때 일본에서 이상할 정도의 높은 관심속에서 논의되었으며 그것이 더 나가서 사회적 진화론이었음을 보여주는 통계를 와타나베교수는 이렇게 제시한다. 영국의 과학지 Nature(1869년 창간)나 미국의 Science(1883년 창간)에서는 1880년대 대소 기사의 총수 중에서 진화론에 관한 것의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하나, 일본의 종합학술지 「東洋學藝雜誌」(1881년 창간)에서는 게재 논문 총수의 8%가 넘고 있다. 그러나 진화론이 가장 많이 취급된 것은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의 분야가 아니라 사회과학의 분야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연과학 61%중 5%, 사회과학 19%중 26%, 인문과학 20%중 1%의 비율이다. 또한 출판된 진화론 관계 서적을 보더라도 1877년부터 1888년의 12년간 생물진화론에 관한 것은 단 4권에 불과하나 H. Spencer 등의 사회진화론 저서는 20권을 넘고 있다. Darwin의 「種의 起源」이 번역되어 나오는 것은 실로 1896년의 일이다.

이때 사회사상으로서의 진화론이 일본의 사상가들에게 주었던 깊은 영향에 대한 몇가지 예를 들어본다. 일찍이 민권운동에 앞장섰으며 동경대학의 綜理를 지낸 加藤弘之(1836~1916)는 진화론에 접하고 나서는 천부의 인권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게 되는데 그의 이러한 사상적 전환은 이때에 큰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바이다. 그에 의하면 인종 국가간에도 우열이 있으며 개인간에도 우열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국내적으로는 보통선거를 반대하고 국제적으로는 부국강병을 정당화하며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사상적 토대로 되었다. 明治초기에 미국에 유학한 후 돌아와 일본인으로서의 최초의 물리학교수가 되었으며 나중에 동경대학 총장에까지 이르는 山川健次郎은 Spencer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물리학을 택하게 되었다는 스스로의 고백을 볼 수 있다. 丘淺次郎(1868~1944)는 생물학자로서 특히 진화론의 일

본소개에 힘썼던 인물인데 그는 Darwin사상이 불교의 無常思想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優勝劣敗 適者生存」이란 개념은 불교의 「盛者必滅 有爲轉變」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진화론에 바탕한 인류멸망을 펴고 있는 것이 대단히 흥미롭다. 이상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본대로 일본에서의 진화론 수용은 사회진화론이며 그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한편 한국에 진화론이 알려지는 시기는 80년대부터로 제국주의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진출이 가속되고 있었던 시기이다. 이때 한국의 선각자들에게 의해,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만이 생존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회적 Darwin주의가 설득력을 가지고 널리 유포되는데 이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보존하자는 한국인의 처절한 노력속에서 사회진화론이 수용되고 논의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진화론이 한국에 도입된 것은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인데 한국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梁啓超(1873~1929)라 하겠다. 그는 戊戌政變이 실패한뒤 1898년부터 일본에 망명하여 1912년 중화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14년간 많은 글을 썼는데 그의 대표작 『飲水室文集』(1903)은 전 18권으로 한국에서 번역도 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그의 사상은 생존경쟁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그의 저서는 한국의 지식인 사이에 크게 애독되어 신문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일찍이 1880년대부터 진화사상에 접한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인 兪吉濬(1856~1914)을 들 수 있다. 1881년과 82년의 일년반에 걸친 일본유학 동안에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문명개화론자인 福澤諭吉에게서 사사받기도 하였는데 돌아온 후 쓴 그의 『競爭論』은, 국가의 일로부터 개인의 일에 이르기까지 인간사회는 경쟁을 통하여 진보한다고 역설하였던 것이 한국에서의 진화사상 도입의 시작이라고 하겠다. 1876년의 개국에서 1910년의 한일합병에 이르는 시기는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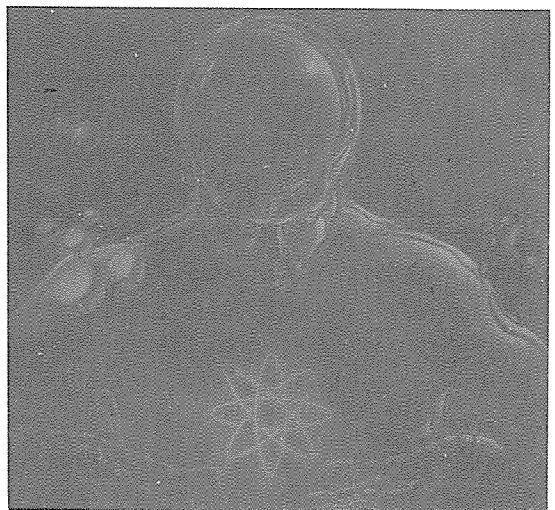
감이 팽배해서 국력을 배양하여 외세에 대항해 나라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일대 국민적인 각성이 있었던 시기였다. 결과로 나타난 것이 대대적인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것으로, 이 운동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1905년말에서 1908년 사이에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때 뜻있는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단체가 세워져서 국민적 교육에 힘쓰게 되는데 수많은 정치 사회 교육단체, 학회, 학교가 세워졌고 언론이 확립되었다. 이들은 그들의 학보, 월보, 학시, 논설 등을 통하여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국민의 교육을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대 즉 구한말 우리 사회내의 Darwin 사상의 영향은 엄청난 것으로 진화론의 유행은 구한말 우리 사상계의 흐름을 규정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생존경쟁, 적자생존이란 개념이 이 시대의 유행어였던 예를 들어보자.

1906년 11월에 평안도의 어느 마을에 光華라는 학교가 세워졌을때 학생이 지은 축가에는 競爭列強 대치, 優勝劣敗 등의 말이 쓰이고 있다(「大韓每日申報」1906.12.15). 1906년 7월에 西友學會가 조직되면서 그 취지문에는, 생존경쟁은 天然이요 優勝劣敗는 公例라고 하고 있다. 이 시대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신문들에서도 진화사상은 넘치도록 표현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근대적 신문이 창간된 것은 1883년의 「漢城旬報」이나 본격적으로 독자층이 형성되고 여론에 영향을 주는 것은 1896년의 「독립신문」부터이다. 이들은 주로 사회적 계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例로서 「大韓每日申報」1908년 2월8일자에서는 논설 「競爭進化論의 大概」에서 19세기 이래의 세계문명의 진보가 Darwin 의 공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大韓自強會月報」11호(1907.5.25)에 실린 「생존의 경쟁」이라는 글에서도, 약육강식은 현세의 예이고 생존의 경쟁이 사회의 보편적인 원리라고 주장하여, 오늘날의 세계가 각 민족이 생존경쟁하고 우승열패하는 제국주의 시대라는 것이 이 시대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을 알게 해준다. 이때에는 교육이 역설되어 많은 학교, 학회가 설립되었는데 「大韓學報」10호(1907년 5월24일)에서

는 「교육이 不明이면 生存을 不得」이란 논문에서도 생존은 천연이요 우승열패는 공례라 하면서 교육을 역설하고 있다. 이 시대 새로이 일어난 민족사관도 진화론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로서 민족사학자 申采浩(1880~1936)는 「大韓協會月報」3호(1908년 6월5일)에 실린 그의 「역사와 애국심과의 관계」에서 역사를 투쟁으로 보고 있음을 읽는다. 국민 하나하나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적의 新民思想 제창도 역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 신사상의 주장자들은 한걸음 나가서 유교적 가르침을 위시한 학문 및 사상체계를 구사상이라 하고 그들의 守舊派라 하면서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진화론을 소개하는 글은 각종 잡지에 수 없이 실리고 있으며 단행본으로도 수권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大韓每日申報의 신간서적 안내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진화론관계 서적이 몇 권 보이는데 이들도 「人羣進化論」에서 나타나는 대로 사회진화론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같이 사회진화론의 열풍이 구한말의 우리 사회를 휩쓸었으나 생물진화론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형편이었다.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는 Darwin의 「종의 기원」이 우리말로 출판된 것이 1950년대였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회진화론만이 중심이 되어 수용 논의되었고 또 광적이라 할 만큼 유포되



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생물진화론의 수용과 논의는 극히 피상적으로 그치고 있다. 물론 서양의 근대과학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동양삼국 중 가장 앞서 있었던 일본이 같은 사회진화론의 수용에 있어서도 丘 등 생물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미에 직접 유학하여 그 뒤 돌아와서 일본학계에서 가르치는 전문학자들에 의해서 논의 유포되었고 따라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였고 여기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아마추어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차이는 지적되고 넘어가야 하겠다. 어쨌든 생물진화론은 그저 하나의 확립된 진리로서 간단히 인정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대 일본과 한국이 단지 생물학 수준이 낮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연선택이론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독특한 주장인 것이다. 거기에는 동양과 서양의 다른 자연관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서양에서 진화론적 논의가 당면하였고 궁극적으로 극복해야만 했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였다. 첫째 인간은 이 자연계에서 특별하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고, 둘째 종은 영원불변하며 초감각적인 실재이며, 셋째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완벽한 적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서양생물학사를 통하여 강조되어 왔고 또 궁극적으로 진화론에 의해 부정되는 이 사상을 배양했던 것은 바로 서양인이 자연을 바라보는 특이한 시각인 목적론적 자연관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자연은 합리적인 설계의 산물로서 질서와 조화를 보여준다. 모든 자연적인 존재는 각각 고유의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며 행위한다. 이들은 상호간에 이질적이며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엄격한 위계적 질서속에서 그들 고유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서 자연은 하나의 “存在의 사다리”(Scale of Being)를 형성하고 인간은 그 정점에 있다는 것이다. 목적론은 필연적으로 고유불변하는 종과 그의 환경에의 완벽한 적응이라는 개념을 확립시켰고, 인간의 우주내에서의 특권을 합리화시켰다.

19세기의 생물학이 당면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새로이 알려진 모든 동식물에

게 이름을 주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서양생물학의 주요과제에서, 중심개념으로 쓰여온 種을 더이상 變異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자연히 종에 대한 정의나 종의 가변성이 집중적으로 추구되면서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는 사상은 싹틀 수 있었다. 생물들의 주어진 환경에의 완벽한 적응이라는 믿음은 자연의 조화라는 전제로 부터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는데 살아진 동물의 화석 등을 근거로 완벽한 적응은 상대적 적응으로 후퇴하면서 이로부터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란 개념이 이끌어져 나온다. 진화론의 출현은 서양세계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것이 결과적으로 진화사상의 이론적 발전을 유도하였던 주된 자극제가 되었는데 그 원인은 진화론이 바로 자연계에서의 인간의 특권을 보장해온 전통적인 서양적 가치관을 부정했기 때문이었다. 생물학적 관심에서 분류학이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자연계에서의 질서에 관심이 없으며 인간을 자연속에 융화되어 있는 자연계의 한 일원으로서만 보는 다른 사회에서는 진화론은 생각되어지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사상이 알려지더라도 아무런 충격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일견하여 가장 反진화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론은 동시에 진화론이 태어나기 위한 토양이 되었다. 비유한다면 진화론이라는 하나의 사상이 수정되고, 그 胎가 그 자신의 「구조 Organization」를 갖추며 성장하기 위한 영양을 제공하는 알(卵)이 최후로 하나의 완벽한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소모하고 끝에 가서는 그 껍질마저 부서쳐야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목적론적 자연관은 하였던 것이다. 서양과는 다른 유기체적 자연관을 가진 한국 및 동양에서 진화론이 서양과는 전혀 다른 의미 및 충격으로 수용되는 것도 바로 목적론과 연관하여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이 글은 11월2일 KID빌딩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과학사학회 '91년 가을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전재한 것임 편집자